



What's new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47 | 2020.12.23

딜로이트 안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코로나 19 로 제약바이오 업계 불확실성 확대...

의약품 심사동향·경영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제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1 월 4 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 이하 태평양)과 공동으로 '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딜로이트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규모 오프라인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병원 방문자가 감소해 수익성 악화·임상시험 지연·원료 수급 불안으로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또한 재택근무 확대로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유해정보(비인가 개인정보, 타사 기밀, 내부 의사결정 자료, 삭제 기한이 지난 정보, 경영진이 확인 못한 기타 위험 있는 자료 등) 유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약바이오산업에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처럼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의약품 심사 동향과 경영 유해정보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약바이오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의약품 심사 동향과 제반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창성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본본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Financial Crisis) 사업부문 이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기업의 공통적인 유해정보를 비롯해 경영상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설명하고, 이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뒤를 이어 김나경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이 신약 개발과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등을 포함한 의약품 심사 관련 최근 이슈와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원장은 지난 8 월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관련 규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규정 및 제도 변화에 기업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철호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사업부문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IT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게임,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소규모 세미나를 열어 더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신뢰성 높은 ESG 기준 구축 및 확산을 위한 MOU 체결 지속가능성위한 생태계 구축에 공동 협력...AI 평가기반 ESG Award 수여 및 ESG 리더십 과정 진행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0 일,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지속가능발전소(대표이사 윤덕찬)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레이첼카스홀에서 국내 기업들의 환경부문 성과평가 및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뢰성 높은 ESG 기준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전략적 협약식(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중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ESG 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사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ESG 포럼을 개최하고, ESG 동향 안내와 자문서비스 등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환경가치 기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고위 교육과정인 ‘ESG 리더십과정’을 개설해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한국형 ‘그린 얼라이언스(Green Alliance)’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대기업, 외국계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ESG 전략과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을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관리를 중요한 경영 아젠다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20 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전담팀을 운영하며 환경, 사회 및 기업지배구조를 각 요소별로 진단하고 성과를 측정해 ESG 개선 전략과 로드맵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협약 이후 딜로이트 안진은 다수의 다국적 기업, 국내 상장회사 대상의 자문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ESG 성과 평가 및 시상, 전반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함께 진행하고, 홍보사업, 교육 프로그램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딜로이트가 정립한 6 개의 산업별로 국내 기업들의 ESG 에 대한 성과를 AI 기반으로 평가, 우수기업에 ESG Award(ESG Entrepreneurship Award)를 수여하고 환경경영 가치 기준 정립에 일조할 예정입니다.

홍중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는 “ESG 는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사업연속성을 위해서 모든 기업의 경영자가 관심을 가져야 화두”라고 설명하면서 “딜로이트는 회계 및 컨설팅 분야의 세계적인 프로페셔널 서비스 기업으로서 고객의 ESG 전략수립과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ESG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전문기관들이 힘을 모아 국내 올바른 ESG 평가기준을 만들고 국내 기업들이 활발한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한 ESG 포럼과 ESG 리더십 과정을 운영해 ESG에 관심있는 기업과 기관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허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는 “COVID-19 국면을 통해 기업의 ESG 역량이 위기상황 대처에 효과적임이 입증됐다”면서 “ESG는 리스크 관리 관점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지속가능하고 우월한 사회적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대”라고 전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 2021 인적 자본 동향 리포트 발행

‘블랙스완’급 위기상황, 직원·기술 협업 기반 ‘슈퍼팀’으로 극복

코로나 19 등 위기상황 하 ‘인간 중심 전략’ 개발 주력...

기술과 인간의 ‘통합’ 위한 근무방식 재설계 필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대표이사 송수영, 이하 딜로이트 컨설팅)는 14일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표한 ‘2021 글로벌 인적자본 동향 보고서(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를 인용해 “코로나 19로 인해 전례 없는 근무형태 변화를 겪으며 기업 경영진은 인적자본 문제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고 새로운 근무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자본 동향 보고서는 딜로이트 컨설팅 인적자본(Human Capital) 부문에서 매년 발표해 온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인적자본 운영방식과 ‘업무(work)’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인식 변화를 담았습니다. 전 세계 96개국 3,600명의 인사전문가(41%) 및 기업 리더(59%)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 중심의 전략(human-centric strategies)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전략’이란 임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재설계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은 글로벌 기업들은 위기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준비 수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그친 반면 기업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블랙스완’급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지난해 6%에서 올해 17%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팬데믹 이전(2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오른 47%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리더와 인사전문가들은 위기대응의 핵심으로 ‘임직원 잠재력 극대화’를 꼽았습니다. 무려 72%의 응답자가 미래에 발생 가능한 ‘파괴적 변화(disruption)’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을 익히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새로운 업무에 도전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양한 위기상황과 예상치 못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인사이트와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리카 볼리니(Erica Volini) 딜로이트 컨설팅 인적자본 리더는 “코로나 19 시대와 같은 급변기에 기업은 내부 임직원의 협업능력, 창의력, 판단력, 유연성과 같은 능력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다”면서 “기업 리더들과 경영진은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요소로 ‘슈퍼팀(superteam)’을 꼽았습니다. 지난 2020 년 인적자본 동향 보고서에서 ‘인간과 AI 의 통합’으로 정의됐던 슈퍼팀은 올해 AI 와 로보틱스 등의 최신기술이 업무에 통합된 팀으로 개념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최신기술이 인간의 역량과 통합되면 업무에 새로운 생각과 시각이 더해져 사람으로만 구성된 팀에 비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최신기술이 인간의 판단력과 인사이트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보고서는 바라봤습니다. 또한 향후 기업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에서 벗어나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므로 기술과 인간의 우수한 능력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슈퍼팀이 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AI 를 위시한 최신기술이 업무자동화가 아닌 임직원 역량강화의 도구이자 ‘협업의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기술이 업무에 ‘통합’ 되면 생산성, 민첩성, 혁신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증가했습니다. 응답자 중 61%가 “향후 1 년에서 3 년 내로 근무방식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팬데믹 이전 29%의 기록에 비해 2 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기술과 내부 인력과의 ‘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생각을 방증합니다.

기업들은 근무방식을 재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직문화’, ‘임직원 역량 강화’, ‘신기술 도입’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습니다. 이 요소들은 효과적인 슈퍼팀을 구축하는데 있어 필수요소입니다.

제프 슈워츠 딜로이트 컨설팅 미래업무(Future of Work) 부문 리더는 “앞으로 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방식이 바뀔 것”이라며 ‘인간과 기술의 통합’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학습방식과 업무 수행방식을 제시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세훈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파트너는 “AI 를 비롯한 최신 기술이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 하라며, “이런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융합형 인재인 ‘퍼플 텔런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퍼플 텔런트는 딜로이트 컨설팅이 창안한 용어로 기술, 특히 AI 등 Digital Technology 와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19 로 클라우드·영상진단 시장 날개 달았다

딜로이트, 2021 첨단기술·미디어·통신산업 전망...

2021 년 클라우드 시장 1600 억 달러 성장 기대

고령층 IT 사용량 증가가 영상진단 시장 성장 촉진...

인텔리전트 엣지 확산으로 타 산업 파급효과 기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딜로이트 글로벌의 ‘2021 글로벌

첨단기술·미디어·통신산업 전망(2021 Deloitte Global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 19 로 인해

첨단기술·미디어·통신산업(이하 TMT 산업)은 압축적인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클라우드·영상진단·인텔리전트 엣지 부문에는 최대 수십 년에 해당하는 변화가 수 년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매출은 락다운과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매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클라우드를 제외한 IT 인프라 매출의 역성장세와 달리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매출은 분기별 25% 이상 성장해 올해 최소 1250억 달러, 2021년에는 160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센터가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의 선행지표인 반도체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반도체 판매량은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36%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올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트래픽 대비 클라우드 트래픽 비중이 45% 증가하는 등 클라우드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클라우드 전환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90%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97%의 IT 담당자가 다양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IT 전문 컨설팅 기관인 IDC의 서베이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올 4월 CI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온프레미스(on-premise) 워크로드는 2019년 59%에서 2021년 35%로 크게 줄 것으로 예측된 반면 동기간 퍼블릭 클라우드(23%→38%) 워크로드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진단 산업도 ‘수혜산업’으로 꼽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 메디케어 1차진료 건수 중 영상진단을 포함한 ‘텔레헬스’의 비중은 지난해 0.1%에서 올해 4월 43.5%로 급증했는데, 보고서는 증가폭의 상당 부분을 영상진단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진단이 급증한 이유로 고령층 사이에서의 IT 기기 소유 증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층 사이에서 스마트폰(51%→82%)과 태블릿(53%→66%) 등 IT 기기 소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동기간 16%p 증가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IT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진 것도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층 사이에서 IT 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량이 ‘임계점’을 넘은 것이 영상진단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한 관련 시장도 전망이 밝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대비 2021년에는 영상진단 수가 4억 회 증가해 250억 달러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영상진단 관련 솔루션 시장은 80억 달러, 영상진단 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홈케어 시장은 330억 달러(2019년 대비 20% 성장)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인텔리전트 엣지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엣지’는 데이터를 외부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로 이송하지 않고 생성되는 ‘장소’에서 분석·처리하는 솔루션으로, 비즈니스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인텔리전트 엣지 시장은 연평균 35% 성장해 2021년에는 120억 달러 규모로 커지고 2023년에는 글로벌 기업의 70%가 엣지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G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하는 통신기업과 IT 인프라 및 서비스를 최적화해야 하는 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엣지 시장의 성장은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인텔리전트 엣지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대응,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할 가능케 해 자율주행차, VR, IoT 등의 첨단기술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제조업, 유통업, 로봇틱스, 교통, 그리고 전자제품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급격하게 ‘진화’ 될 수 있는 대규모 전환(transformation)을 일으켜 4 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리안 부케일리(Ariane Bucaille) 딜로이트 글로벌 TMT 산업 리더는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과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례 없는 기술적 변화를 초래했다”며 “다양한 기업과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생태계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손재호 파트너는 “코로나 19 가 글로벌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런 위기상황은 소비자의 니즈 및 기업의 경영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첨단기술·미디어·통신산업(TMT) 전망 리포트는 딜로이트 글로벌이 20 번 째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딜로이트 고객, 산업 애널리스트, TMT 산업을 주도하는 경영진 및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의 TM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성됩니다.

2021 TMT 산업 전망 보고서(원문)은 [딜로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